南北경제교류, 電力부터 始作하자

電力피크타임때 서로 送電

政府의 北方外交政策에 따라 南北韓간의 경제교류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그 가능성의 전망이 가장 밝은 것이 電力分野이다. 다음은 지난 2월 7일자 中央日報에 게재된 내용을 轉載한 것이다.

相互間 큰 이익

鄭周永 現代그룹 명예회장의 訪北으로 멀게만 보이던 金剛山이 손에 잡힐듯 다가왔다.

北韓과의 경제교류가 可視圈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러나 南韓의 질좋은 공산품을 北韓에 팔고 北韓의 원자재를 수입해오겠다는 생각은 北韓의 경제체제나 「자존심」을 고려할때 환상에 가깝다는게 정부당국자의 시각이다.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의류·컴퓨터를 파는 대신 무연탄·철광석을 가져오는 것은 北의 입장을 생각할때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北韓의 지하자원 수출도 매장량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외화획득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北韓과 당장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간에 큰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분야가 南北韓간의 전력융통이다.

北韓과는 1948년 5월14일 北韓측이 송전선을 단절할때까지 우리가 전력을 공급받고 대신 물자를 北측에 제공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美國과 카나다·유럽각국은 전력을 상품화해서 수입·수출을 하고 있다.

可能性 檢討中

動資部와 韓電에 따르면 北韓과 전력을 주고받을 경우 융통규모에 따라 최소 1조~3조원 가량의 발전설비비용을 서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南北韓전력의 품질이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北韓의 자존심을 건드리지도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北韓과의 전력교류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도 가장 경제성있는 南北교류대상으로 전력을 꼽고 실증연구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전력교류는 원래 시차가 같은 南北보다는 서로 다른 東西지역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낮과 밤이 달라 전력수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南北韓의 경우 시간대는 같지만 南韓이 전력수요의 피크타임이 여름철인 반면, 北韓은 겨울철 초저녁이어서 전력의 융통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원자력과 화력발전소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반면, 北측은 수력발전소가 대부분이어서 南韓이 평상시에 기저부하를 맡고 전력피크타임때만 北韓이 순간발전이 가능한 수력발전을 해주면 서로 불필요한 발전설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最近에는 電力難

작년 여름 南韓의 전력최대수요는 1,365만

8,000kW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피크타임때 1,225만kW를 오르내리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1,100만kW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피크타임때 추가로 소요되는 전력을 北韓의 수력에 의해 우리가 공급받을 경우 상당한 규모의 설비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1백만kW용량의 원자력발전소를 1基 세울 경우 건설비가 1조6천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가 2백만kW의 설비를 줄일 수 있다면 3조2천억원을 절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北韓측도 한때는 전력이 풍부해 中國에까지 수출했으나 최근에는 전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水豊발전소(70만kW)보다 규모가 큰 泰川수력(80만kW)과 5共시절 대응댐 건설 소동을 벌이게 했던 金剛山수력발전소 건설을 서두르고 있어 평상시에는 기저설비가 풍부한 우리측이 전력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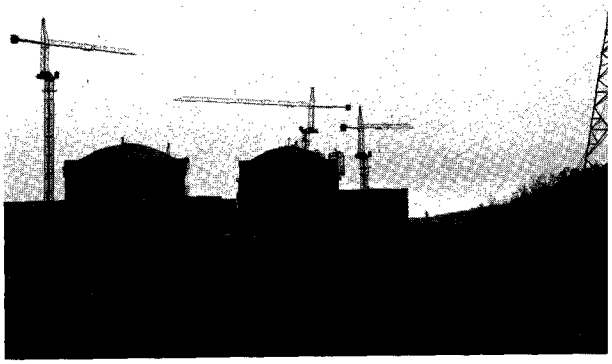
斷電日誌 보관

南北韓의 전력교류가 이뤄질 경우 끊어졌던 「핏줄」이 다시 이어진다는 상징적 의미도 적지 않다.

해방직후 우리나라의 발전시설용량은 172만kW수준. 南韓에는 19만8,000kW밖에 없었고 대부분 北韓에 편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平壤~水色, 金剛山~往十里 등의 송전선을 통해 10만kW를 北韓으로부터 공급받았으나 北韓측은 南北분단이 기정사실화되고 南韓 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구체화되자 1948년 5월14일 낮 12시를 기해 일방적으로 斷電해버리고 말았다.

당시 韓電의 전신인 朝鮮전업주식회사 상황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던 韓國전력기술주식회사 辛基祚사장(66·당시 朝鮮전업 급전과장)에 따르면 이날 아침 北韓측으로 부터 전력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전화가 걸려와 당시 尹日重사장(작고)이 통사정을 했으나 결국 우리측의 요청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辛사장은 이때 상황일지에 「5월14일 낮12시. 이북에서 각 송전선 차단함. 원만한 해결이 있기 전까지는 송전불능하다」라고 적어두었으며 이 일지는 그대로 보관, 현재 韓電의 지하급전사령실에 영구보존되고 있다.

辛사장은 「北韓이 전력공급을 중단한 이후 거의 가동치 않고 있었던 화력발전소를 다시 손질해 가동할때까지 몇개월동안 비상등만 켜두었으며, 美軍의 발전선까지 동원해 해안에서 육지로 전력을 공급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辛사장은 「한때는 서로 오가며 술도 받아주고 했던 北韓측이 일방적으로 단전조치를 취해 한없이 야속했으나 이제는 서로 끊어진 '핏줄'을 다시 이어야 할때」라고 말했다.

蘇聯, 北韓에 火力發電設備 지원

소련의 설계 및 설비지원으로 건설될 北韓의 東平壤火力發電所가 1991년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한다는 목표하에 2월 10일 착공됐다고 중앙방송이 보도했다.

東平壤火力發電所는 소련이 12차5개년계획(1986~1990년)기간중 북한에 건설지원키로 한 19개의 産業施設 가운데 하나인데, 소련의 지원하에 건설된 화력발전소로는 北倉, 平壤, 雄基, 淸津에 이어 다섯번째가 되며 發電能力이 20만kW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